



화쟁과 치유의 국어교육

Korean Literature Education as a Method of Hwajaeng(和靜) and Healing

저자
(Authors) 이강옥
Lee, Kang-Ok

출처
(Source) [국어교육연구 75](#), 2021.2, 291-316 (26 pages)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75](#), 2021.2, 291-316 (26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교육학회](#)
Associ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32923>

APA Style 이강옥 (2021). 화쟁과 치유의 국어교육. 국어교육연구, 75, 291-31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16 13:3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화쟁과 치유의 국어교육*

이강옥**

〈 차례 〉

- I. 서론
- II. 비판적 사고 교육에 대한 성찰
- III. 원효대사 화쟁의 학문적 수용
- IV. 말하기에서의 소통과 교감, 연민
- V. 문학교육에서의 깨달음
 - 1. 시비심 극복으로서의 깨달음
 - 2. 우울 극복의 깨달음
- VI.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갈등 사회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동참하는 국어교육의 자세와 방안에 대한 연구를 담았다.

비판적 사고 교육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따져보았다. 비판적 사고 교육은 4차 교육과정 이후 국어교육을 이끌어가는 유용한 방법론이었지만, 사회적 갈등의 극복이란

* 이 논문은 “갈등 사회의 도전과 화해로서의 국어교육”이란 주제의 ‘제52회 2020 국어교육학회(since1969) 전국학술발표대회’(2020년 12월 12일)에서 기조발표 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조발표의 성격상 논증의 과정이 소략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논저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과제를 모색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차별심에 의한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국어교육에 응용할 것을 제안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말하기 교육의 폐단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서사문학의 말하기에는 계급 간 소통, 연민, 공감의 것들이 있다. 오늘날 말하기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그 전통을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황희 일화는 시비심을 초월하는 문학교육 프로그램 구안에 적절하다. 구운몽은 우울 극복의 문학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태도를 모색하는데 유용하다고 본다.

I. 서론

갈등은 두 쪽 이상이 분별될 때 생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람과 식물 등이 갈등하는 쌍이 될 수 있다. 두 쪽이 매개항 없이 분별되면 될수록 갈등은 격화된다.

갈등을 말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먼저 떠올린다. 갈등하는 사람의 속성에 따라 갈등의 양상도 복잡해진다. 이제 사람과 갈등하는 상대로서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도 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게 되었다. 이런 갈등은 근대 이전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 갈등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사정이 다르다. 사람이 동물이나 식물의 자리를 배려하지 않아서 발생한 갈등이 코로나 시대의 본질이라 할 때, 그 사례에 대한 전면적 성찰이 다시 필요하다.

또 갈등은 '나'와 대상 사이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내 속에도 갈등이 일어난다. 나와 타자 갈등 못지않게 내 속의 갈등이 더 다양해지고 심각해졌다. 그래서 내 속의 갈등을 살피는 '자기 성찰'이 더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교육은 이런 갈등의 격화와 다변화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현존하거나 예상되는 갈등의 다양한 사례들을 따져보고 그 각각에 대해 알맞은 국어교육적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이 추구했던 교육목표와 교육방법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우리 안에 엄존하는 갈등을 직시하고 그 해결을 위한 국어교육적 방안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II. 비판적 사고 교육에 대한 성찰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¹⁾부터 국어교육에서 비판적 사고 교육이 강조되었다. 비판적 사고는 ‘사람들이 어떤 논의, 추론, 증거, 가치를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결정을 내릴 때 일어나는 일련의 지적 절차’²⁾로 정의된다.

비판적 사고 교육은 세상 현상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것을 따져보게 하기에 학생들로 하여금 ‘주체적 자아’로 성장하게 할 수 있다. 오늘날 학생들이 느끼는 불행감이나 우울감의 많은 부분은 주체성의 상실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편협된 통념이나 관념적 가치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기만 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나 남을 의식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삶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되는 통념이나 가치기준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면 자기 스스로의 관점과 기준을 정립할 수 있으며, 그로써

-
- 1) ‘중등학교에서는 국어를 정확하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국어 활동을 통한 고등 사고력과 심미적 안목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2) 광병선(1980), 「비판적 사고의 교육」, 『교육개발』 9호, 한국교육개발원, 50면.

당당한 주체적 인격체로서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다. 비판적 사고 교육은 이런 주체적 삶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더 정의롭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의를 가진다. 오늘날 문학교육을 포함한 읽기와 말하기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력 배양을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한 것은 그런 점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비판적 사고 교육의 이러한 장점과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그것이 기능적·태도적 차원에 치우치거나 지나치게 분석적·논증적 태도를 조성한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³⁾ 비판적 사고 교육은 ‘수용’의 결정으로도 나아가고 ‘거절’의 결정으로도 나아가지만, 그 ‘비판’이라는 키워드는 ‘거절’에 더 기울어 있고,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대상의 어떤 면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비판적 사고 교육의 유용성과 가치를 인정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것 같다. 국어교육이 갈등 사회의 해결을 지향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비판적 사고 교육의 보완으로 사회 수준의 검증단계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자의 사고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뿐 아니라 내면과 외면, 내면과 내면의 관계에서 조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런 보완 역시 한계를 가진다. 주관의 객관화 방향은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있지만, 주관이 더 깊은 내면으로 내려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비판적 사고 교육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이 후자의 지점에서 더 근본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자기를 또 다른 자기가 바라보는 것은 자기의 망상(妄想)을 반성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가장 철저히 객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역설도 가능하다. 더욱이 텍스트를 읽는 개인의 사고를 검정하려 한다면, 사회가 아니라 우선 텍스트 자

3) 김혜정(2008),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지도 방향」, 『독서연구』 제20호, 55면.

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⁴⁾

비판적 사고 교육은 문제 해결 과정에 초점을 맞춘 학습법에는 알맞게 활용될 수 있다. 비판적 사고 교육은 텍스트에서 문제를 발견해내고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시할 것이다. 그 결과 ‘의미와 가치, 내면화와 통찰, 상상력과 이상 등은 배제되는 경향’⁵⁾이 생겨났다.

비판적 사고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비평적 사고’ 개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문학 교육에서의 비평적 사고는 문학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바탕으로 한 독자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한다. 비평적 사고에서는 ‘반성적 사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그 반성적 사고는 ‘세계, 타자, 자기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실천하는 윤리적 행위’로 나아가게 한다.⁶⁾

이로써 비판적 사고력이 성찰적 사고력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가 주어져야 한다. 먼저 학습자들이 비판적으로 읽은 텍스트 내용을 자기화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떤 부수적 조치가 있어야 할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사의 역할을 떠올린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고가 ‘언어’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언어는 실체를 분별하게 한다. 문학교육이 그런 언어를 근간으로 하는 사

4) 이상 비판적 사고 교육에 대한 비판은 이강욱(2009), 「문학교육과 비판·성찰·깨달음」, 『문학교육학』 2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12-14면 참조.

5) 최홍원(2007), 「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0면.

6) 이상 선주원(2006), 「비평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소설 교육-교육대학생의 비평적 에세이 쓰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328-329면 참조; 김도남도 읽기 교육이 읽기 주체에 대한 성찰에 게을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찰적 읽기를 모색하여 읽기 주체의 정신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도남(2007), 「성찰적 읽기 교육의 방향 탐색」, 『국어교육학연구』제28집, 241면)

고 교육만을 지향한다면, 우리 세상을 거칠게 만드는 이분법적 분별론으로부터 학습자들을 해방시켜 주기는커녕 거기로 더 빠져들게 만들 것이다.

분별지(分別智)는 학습 과정의 수단으로서 중시되어야 할 유용한 학습 능력이라 하겠지만, 그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삼을 수는 없다. 분별지에 머물므로써, 시시비비가 극대화되고, 마침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수단과 과정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자체가 인간 삶을 구성하는 중심 요소가 되어 버린다. 국어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문학교육은 오히려 분별지를 초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학습자들도 그 미덕을 더 간절히 자기화하는 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겸양, 양보, 배려, 관용 등은 지적 학습의 원리이면서도 바탕이 되기도 한다. 분별심을 초월하여 마침내 이른 단계는 나의 동일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무아(無我)’, 나의 언어에 의해 포착되는 것과 같은 세계는 고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상(無常)’이다. 문학교육은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며 학습자들을 이끌어가는 배려를 해야 할 것 같다.

Ⅲ. 원효대사 화쟁의 학문적 수용

국어교육에 몸담고 있는 주체들의 반목과 갈등을 생각한다. 학자들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춰본다. 학설이나 주장에서의 갈등을 ‘쟁론’이라 한다면 그 자체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남의 학설에 대한 냉철한 문제 제기와 비판은 학문 공동체의 기본 분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학자의 글쓰기는 쟁론의 창출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쟁론이 이해 관계를 우선한 상호부정의 연쇄가 된 사례를 적잖이 경험한다. 남의 학설 깎아내기에 혈안이 되고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되풀이하는 사태는 결코 학문적 발전이라는 미명으로 합리화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표절 못지않게 학문 세계를 황량하게 만든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쟁론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원효대사는 당시 불교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서 일어난 갈등의 문제성을 직시하여 그것을 ‘쟁론’으로 규정하고, 그 쟁론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화쟁(和諍)’을 제시했다. 다양한 주장 사이의 다툼을 화해시키는 것은 그냥 다툼을 없애려는 것과는 다르다. 화쟁의 목적은 결국 불필요한 다툼을 극복하고 모두 함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⁷⁾

원효대사는 부처님 가르침의 원리와 언어의 본성에 대한 해명에서 화쟁의 근거와 해법을 찾았다. 먼저 일미(一味)와 일심(一心)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내세웠다.

여래가 설한 일체 교법(教法)은 일각미(一覺味; 하나의 깨달음의 맛)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 일체중생은 본래 하나의 깨달음을 갖추고 있었지만, 무명(無明)으로 말미암아 꿈결처럼 유전(流轉)한다. 그러나 모두 여래의 일미(一味; 하나의 (깨달음의) 맛)에 따라 일심(一心)의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음이 없다.⁸⁾

일체중생은 본래 하나의 깨달음을 갖추고 있었기에 평등하고 차이가 없다. 그래서 다툼이 생길 수 없다. 그러나 무명으로 말미암아 꿈결처럼 흘러가며 망상을 일으키고 환(幻)에 집착한다. 여래의 하나의 깨달음의 맛은 이런 일체중생을 다시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니 일체중생은 하나가 된다. 일심의 자리에서 보면 다툼은 어리석고 쓸데

7) 최유진(2020), 『원효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116면.

8) 如來所說一切教法，無不令入一覺味，一切衆生本來一覺，但由無明，隨夢流轉，皆從如來一味之說，無不終歸一心之源(원효, 『金剛三昧經論』 권 상(1983), 『한국불교전서』1, 동국대학교불교편찬위원회, 동국대학교출판부, 610면.

없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화쟁의 근거가 된다.

또 원효대사는 화쟁을 위해서 언어의 본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언어에 대한 오해에서 집착이 생기고 마침내 논쟁으로 나아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⁹⁾ 언어는 진리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전리를 왜곡하기도 한다. 초기 불교 『맛지마 니까야』 〈꿀 덩어리 경〉¹⁰⁾도 모든 논쟁과 분쟁을 언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한다. 논쟁과 분쟁은 관념적 언어에 의한 관념적 인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관념적 인식에 의해 형성된 개념과 이론에 집착하지 않아야 논쟁과 분쟁의 폐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개념과 명칭은 모순율(矛盾律)에 의해서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은 극단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은 ‘체험적 인식’을 통해 이런 극단적 대립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쳤으니, 그 근본 원리는 중도(中道)이다.

원효대사는 화쟁의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집착을 버리고 극단을 떠나는 것.

둘째, 긍정과 부정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긍정과 부정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

셋째, 경전 내용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것.¹¹⁾

셋째의 ‘경전 내용’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것은 국어교육의 경우,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교육대상으로서의 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어교육이란 학문과 국어교육학 학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긍정과 부정을 자유자재하면서 극단론을 넘어서는 글

9) 최유진(2020), 『원효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117면.

10) 이증표(2020), 『정선 맛지마니까야』, 불광출판사, 122면.

11) 최유진, 앞의 책, 같은 면.

쓰기를 지향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원효대사가 주창한 ‘화쟁’의 목적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궁극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것이다. 원효대사는 화쟁과 함께 ‘회통’ 개념을 생성했다. 화쟁이 ‘다툼의 화해’라면 회통은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이다. 화쟁이 집착을 버리고 무의미한 다툼을 극복하는 것이라면, ‘회통’은 서로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갈등을 극복하는 교육적 방안을 생각한다면 ‘화쟁’을 바탕으로 하여 ‘회통’에 이르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원효대사가 화쟁과 회통을 강조하고 실천한 것은 시대적인 상황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불법(佛法) 안의 사자식충(獅子食蟲)’이 횡횡하는 시대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본 결과인 것이다. 사자식충의 행위란, 일부의 경론만을 알고 전체를 모르는 것, 낮은 소견을 갖고 있는 것, 경전을 널리 배우고도 스스로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것 등이다. 그런 존재들은 불법의 가르침을 정확히 안 것도 아니고 불법을 적절하게 실천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화쟁과 회통을 주창했던 것이다.

원효대사의 시대 서로 다투던 학생들이 보인 오류는 일종의 견폭류(見暴流)에서 비롯했다고 하겠다. 견폭류는 자기 견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망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사람의 인식은 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은 업식(業識)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인식이나 언어 사용의 경험이 쌓이면 역으로 업식이 달라진다. 달라진 업식은 다시 인식과 언어 행위를 달라지게 만든다. 고로 모든 인식은 업식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진실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견폭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견해는 스스로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지 맞는 것은 아니다.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견폭류에서 벗어나

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이나 언어 행위가 조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점을 아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하고 어이없는 다툼과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야만 화쟁을 실천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유하고, 관찰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토론을 활발히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수행자의 수행 자체라 할 수 있으며 학문 행위를 하는 학자들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있다. 국어교육 학자도 이런 기본 태도를 갖추고 성실하게 학문적 글쓰기를 한다면 학문의 새로운 활력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IV. 말하기에서의 소통과 교감 연민

국어교육에서 말하기 교육의 궁극적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말하기 교육은 말싸움을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혐의를 벗어났는가? 오늘날 말은 화자와 세계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말하기 교육에서는 말이 진실을 담는 태도와 방식을 가르치는가? 말이 답아야 하는 진실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 갈등 사회에서 말하기 교육이 그 갈등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 질문을 지속하여 던져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말하기 교육의 모형과 방법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조선 시대 서사 속 말하기의 실상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다. 조선 사대부야말로 말하기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갖추었고 말하기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심각하게 고민하였기 때문이다.

필기나 폐설, 야담, 소설 등 조선 시대 서사에서 말은 일정하게 탈바꿈을 하면서 다양한 성격으로 갖가지 역할을 했다. 조선 초기 잡록집의 말은 ‘놀이’의 성격이 강했다. 말놀이에서는 말과 행동이 공존했다. 말의 유희와 행동의 장난이 대응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말을 잘

하고 그런 행동을 마음껏 하는 사람들은 널리 알려지고 또 기억되었다. 가령 조선 초기 잡록집 『용재총화』에서 박이창(朴以昌), 최세원(崔世遠), 손영숙(孫永叔), 성현(成俔) 같은 인물은 우스꽝스런 말을 잘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장난을 좋아하여 엉뚱한 사건을 일으키곤 했던 당사자였다.¹²⁾ 말이 지시 대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담고 있지만, 지시대상은 장난스런 행동 자체이기에 억압적이지 않다.

사회가 안정되었을 때 행동의 일탈은 삶의 무료함을 떨쳐내 주고 삶을 생동하게 하지만, 전쟁 등 위기 상황의 경우, 행동의 일탈은 용납되지 않아 말만의 유희와 일탈을 추구해야 했다. 그래서 사회의 위기가 고조될수록 말놀이를 시도한 사례가 더 돋보인다. 사대부는 말놀이를 통해 불안과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비관을 낙관으로 전환시켜 삶의 활력을 되찾으려 했다. 그것은 그들 고유의 문화적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놀이는 말과 지시대상 사이의 관계가 느슨해도 용인해주었다.

반면 말과 지시대상 사이의 관계를 철저하게 만들려 한 때도 있었다. 발화자는 자기가 한 말의 내용 탓에 자기 생명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 그 말에다 지시대상을 정직하게 담았다. 그런 화자들에게 말하기는 놀이나 장난이 아니라 생명을 건 선언이었다. 사대부들은 한마디 말로써 자기 목숨을 바쳤던 사람을 기억했으니, 사육신, 주처신, 조광조 등¹³⁾이 대표적 사례이다.

조선시대 사대부는 말이 지시대상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진지하게 성찰했다. 사대부 문화에는 다양한 말하기 경험과 말하기에 대한 성찰의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두껍전>, <황새결승>, <요로원야화기>는 이런 성찰이 두드러진 경우다. <두껍전>은 두꺼비를 통하여 말의 위력을 보여준다. 허구에서 거짓말이 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12) 이강욱(2014), 《일화의 형성 원리와 서술미학》, 보고서, 한국문학교육학회, 97면.

13) 위의 책, 156면.

써 진실된 말이 무기력하게 되고 거짓말이 횡횡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황새결승>과 같은 소위 ‘송사소설(訟事小說)’도 그 연장선에 있다. <황새결승>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말은, 진실한 사람이 발화하는 진실된 말이 아니라, 뇌물을 받은 자가 발화하는 거짓말이다. 말의 타락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이루어졌다.

<오로원야화기>는 사람 사이의 편견과 경직성, 권위주의를 말놀이를 통해 극복해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반부에서 서로를 부정하던 두 화자가 후반부에 가서는 대등한 대화와 토론의 상대가 되는데, 말놀이가 그런 전환을 가능케 했다. 말이 착각과 권위를 파괴하고 사람 사이 편견의 벽을 허물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모범을 보였다.

다른 한편 야담은 말 속에 경험 내용을 진지하게 담았다. ‘자기 경험 진술’과 ‘듣기’가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감을 생성하며, 경험이 내장한 가치·지혜·자극·윤리 등을 공유하게 한다. 자기 경험을 진술하는 말하기의 주체와 그것을 듣는 청자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소통은 상이한 계급 간의 교감도 가능하게 하였다. 아전과 양반, 몰락양반과 양반, 천민과 양반, 상민과 몰락양반 사이의 교감인 바, 대체로 전자들이 떳떳하게 자기 경험을 진술하는데 후자들은 그 진술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엄격한 계층 질서가 유지되던 시대의 계층 관계가 뒤바뀐 셈이다. 공감과 소통을 근간으로 하여 마침내 계급 간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말놀이에 의한 소통과 연대의 구조는 조선 후기 계층 관계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소통과 연대에 대한 소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말은 풍자나 비판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런 말하기는 기존 질서나 기존 관계의 변화나 전복을 이끌었다. 야담의 말하기는 경험과 지혜를 담음으로써, 이런 비판적 전복을 보완했다. 경험과 지혜를 담은 말하기는 웃음과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말에 의해 유발된 웃음은 문화를 장식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편견과 권위를 해체하고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말이 화자의 자기 경험과 자기 서사를 담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자기 경험과 자기 서사를 담은 말은 계급과 계급,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공감과 소통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오늘날 심각한 갈등의 상황에서 조선시대 서사의 말하기 양상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오늘날 말하기 혹은 말하기 교육의 위기와 문제성을 더 뚜렷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말하기가 어느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가도 따져볼 수도 있겠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식의 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지 모색하는데 참조할 수도 있다. 우리 선조들은 말하기를 통해 다만 공격과 비판 뿐 아니라 놀이와 해학, 공감과 감동 등을 이뤄냈다는 점을 새삼 되새긴다. 그것을 범례로 삼아 오늘날의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말하기 형편을 반성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말하기 교육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V. 문학교육에서의 깨달음

필자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문학교육’을 구안한 바 있다. 그것은 ‘시비심의 극복’과 ‘우울의 극복’을 지향한다.¹⁴⁾ 학습자가 처한 가장 문제적 상황을 둘로 제시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문학교육적 방법론을 모색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화해 여건을 만드는 수업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깨달음을 지향하는 문학교육은 삶이란 더불어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살아있다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는 진실을 체득하게

14) 이강욱(2009), 「문학교육과 비관·성찰·깨달음」, 『문학교육학』 2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30-48면.

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깨달음을 지향하는 문학교육은 대상 세계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대상 세계를 바라보는 학습자의 관점과 태도를 변화시키려 한다.

1. 시비심 극복으로서의 깨달음

‘분노장애’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분노감과 공격행동이 청소년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¹⁵⁾ 분노감, 적대감, 공격 행동은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차원의 공격성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자기애적 경향이 강한 사람이 공격적 성향이 더 강한데, 자존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과 맞서 언어적 공격을 가하고도 그 행동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¹⁶⁾

공격행동을 초래하는 학습자들의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일어나는 시비심(是非心)을 살펴야 한다. 분노감이나 적대감의 인지적 출발은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분별심인데, 그 분별심이 사회적으로 발현된 것이 시비심이기 때문이다.

최치원의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은 시비심을 대상화하여 살피는 데 유용한 텍스트다. 가야산과 세속 공간을 대조적 공간으로 설정되었다. 세속 공간은 시비(是非)의 소리로 가득 차 있지만 가야산에는 시비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런 대조는 학습자들이 세속을 구성하는 시비의 소리가 어떤 성격을 지니는 것이며, 가야산에서 작가는 왜 시비의 소리가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시작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학습자들이 자기 일상을 꾸려가고 있는 이곳 세상의 갈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15) 서수균, 권석만(2002), 「자존감 및 자기애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한국심리학회, 810면.

16) 같은 논문, 821면.

‘황희 관련 일화’들은 시비심을 극복한 완전한 인격자의 인격 형성 과정과 귀결점을 잘 보여준다. 황희는 관대하고 인자한 인물의 전형으로 그려진다. 황희가 관용의 인격자가 된 데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인과의 만남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 전환은 분별심에 의한 시비 따짐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다.

1) 시비 따짐에 철저하고 타인을 엄격하게 대함

- ① 세종이 가난하여 도적질한 사람을 살려주려 하니, 황희가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은 간사한 무리를 도와주고 선한 사람을 해치므로 죽여야 할 사람은 꼭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⁷⁾
- ② 처가의 패악한 종이 술주정을 하자 황희가 작두로 그 머리를 잘라 버리게 하니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¹⁸⁾

2) 시비를 따지지 않고 타인에 대해 관대함

- ① 이웃 아이들이 복숭아를 다 따가도 그대로 두고, 식사 때마다 종의 아이들이 달려들면 나눠주고 옷을 따름이었다.¹⁹⁾
- ② 이웃집 아이가 잘 익은 배에 돌을 던져 떨어뜨리자, 종을 시켜 떨어진 배들을 버들고리에 담아 이웃집 아이에게 갖다 주게 했다.²⁰⁾
- ③ 황희가 보좌관을 불러 공사를 논하고 종이에 그 내용을 쓰는데 종의 아이가 와서 오줌을 싸다. 그래도 화를 내지 않았다.²¹⁾
- ④ 한 계집종이 와서 다른 계집종의 잘못을 고해마치니 “네 말이 옳다.”했고, 다른 계집종이 와서 한 계집종의 잘못을 말하니 “네 말이

17) 『연려실기술』 별집 제13권 정교전고(政敎典故) 〈형옥(刑獄)〉;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0권 전모편(典謨編) 〈권징(勸懲)〉.
 18) 『동야회집』 〈회도량아동정희(恢度量兒童呈戲)〉.
 19) 『용재총화』 권3; 『해동야언』 2 〈세종기(世宗紀)〉.
 20) 『청과극담』; 『동야회집』.
 21) 『필원잡기』 권1; 『해동야언』 2 〈세종기(世宗紀)〉.

옳다.”고 했다. 옆에 있던 조카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라 하자 황희는 “너의 말도 또한 옳다.”고 했다.²²⁾

1)과 2)의 일화에 등장하는 황희는 시비에 대해 반대되는 태도를 보인다. 시시비비를 엄격하게 하여 일벌백계를 주장하던 황희가 어떻게 하여 철저히 관대한 인물로 변했을까? 학습자들로 하여금 먼저 이 극단적 대조를 두고 다각도의 의견을 생성하게 한다.

3) 충격 경험과 깨달음

〈어느 소가 일을 잘합니까〉

익성공 황희(黃喜)는 고려 말에 적성의 훈도로 있었다. 적성에서 개성으로 가는 길에 한 노옹을 만났다. 노옹은 누렁소와 검정소 두 마리를 끌고 밭을 갈다가 쟁기를 벗기고 나무 아래에서 쉬던 참이었다. 공도 또한 말을 쉬게 하고 노옹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르신, 저 두 마리 소는 모두 살이 찌고 건장합니다. 밭 가는 힘에는 우열이 없습니까?” 하고 공이 물었다. 노옹은 옆으로 다가와서 귀에다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색의 소가 낫고 아무 색의 소가 못하오.” 공이, “어르신은 어찌 소를 두려워하여 이같이 가만가만 말합니까?” 하니, 노옹은,

“심하다. 과묵한 젊은이여. 짐승이 비록 사람의 말을 알아 듣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그를 착하다 하거나 악하다 하면 모두 짐작 하오. 만약 자기가 열등하여 다른 소에 미치지 못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속 마음이 편치 않을 터이니, 그것이 어찌 사람과 다르겠소. 심하도다. 젊은이의 과묵함이여.”

- 22) 『송와잡설』. 그위에도 ‘황희가 성질이 너그러워 남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혹자가 “삼각산이 무너졌다.”하면, “너무 높고 뽕족했었다.”고 대답하고, 또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면 “기세가 완전하고 굳건했다.”고 말했다.’(『성호사설』 제9권 <인사문(人事門)>); ‘술상을 차려온 계집종이 술을 빨리 마시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자 용무가 바쁘데도 술상을 받았다. 종의 아이들이 달려들어 수염을 당기고 안주를 빼앗아 먹고 두들겨도 “아프구나, 아프구나” 하며 웃을 따름이었다.’(『청파극담』) 등을 예화로 활용할 수 있다.

공은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느껴졌다. 공이 평생동안 겸손하고 두터운 도량을 간직한 것도 노옹의 이 한 마디 말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²³⁾

발 갈던 노옹은 소에게조차 잘하고 못한다는 분별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황희는 노옹의 그런 자세에서 충격을 받고 크게 깨달아 삶의 방식을 바꾼 것이다. ‘공이 평생 동안 겸손하고 두터운 도량을 간직’하게 된 것이 노옹의 이 한마디 말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다.

학습자들은 이런 일화들을 통해 일정한 충격과 자극을 받고 시비 문제에 대해 다양한 성찰을 하게 될 것이다. 비판적 사고는 수준 높은 사고력의 하나로 성숙한 삶을 꾸리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성될 수 없다. 비판적 사고의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타자에 대한 관용과 너그러움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이런 시대일수록 더 소중한 것이다. 관용과 너그러움, 선린 등은 우리 삶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덕목일 터인데, 그것이 오늘날의 교육에서 내팽개쳐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아마 그것은 근대적 문학교육이 전통교육을 대신하면서 망각한 것 중 하나라 판단한다.²⁴⁾

2. 우울 극복의 깨달음

오늘날의 갈등 사회에서 학습자들이 보이는 또 다른 성향은 자포자기나 자기학대이다. 이런 성향은 비판적 삶을 초래하여 우울증을 앓게 하기도 한다. ²⁵⁾ 특히 ‘무망감 우울증’의 양상을 보인다.²⁶⁾ 무망감 우

23) 『송와잡설』; 이강욱(1999), 『말이 없으면 답을 타고 가지』, 학교재, 27면.

24) 이와 관련하여 이강욱(2009), 「문학교육과 비판·성찰·깨달음」, 『문학교육학』 2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41면의 각주 59)의 예문과 분석을 참조할 것.

25) 조성진 외(2001), 「한국 일 도시지역 청소년의 우울증상 유병율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정신신체의학』 40(4), 대한신경정신의학회, 627~639면;

울증이란 ‘희망 없음’의 기분이나 ‘동기 결핍’에 의해 조장되는 우울증이다. 모두 경쟁적 사회 분위기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에게는 ‘나의 삶은 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으며’, 그래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면화하는 게 절실할 것이다. 나아가 학습자들이 그런 내면화를 통하여 자기 삶을 혁신하는 경지야말로 학습자 수준에서의 깨달음이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학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텍스트 선택과 그 활용법 구안이 요긴하다. 필자는 우선 <조신>과 <구운몽>을 텍스트로 선정했다.²⁷⁾ 이들 작품은 일상적 삶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계기들을 보여주면서 깨달음의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 주인공인 조신이나 성진은 자기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단계에서 출발하기에 우울한 학습자들이 동일시하기가 쉽다. 반면 작중 인물들의 현실 처지는 학습자들의 그것과 매우 다르기에 학습자들이 그로부터 다시 멀어져 성찰적 거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두 작품은 주인공의 현실 경험이 깨달음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영역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조신의 현실 경험은 세속의 관점에서는 불행한 것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역경계(逆境界)’에 해당한다. 양소유의 현실 경험은 행복한 것으로 ‘순경계(順境界)’에 해당한다. 문학교육은 이런 역경계나 순경계가 주체의 깨달음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먼저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조신>에서 조신은 김흔공의 딸과의 결연을 간절히 원하다가 꿈속

하은혜 외(2003),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증상 공존집단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2, 한국심리학회, 128면.

26) 윤소미, 이영호(2004), 「한국판 무망감 우울증상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 대상으로」,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4, 한국심리학회, 1052면.

27) 이강욱(2009), 「문학교육과 비판·성찰·깨달음」, 『문학교육학』 2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41-45면.

에서 그녀와 결혼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몸서리치다 서로 헤어지면서 깨어난다. 그리고 꿈속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수행에 전념한다. 충분하지는 못하나마 세속의 애욕 경험이 득도나 수행에 긴밀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구운몽>의 경우와 유사하다.

<구운몽>에서 성진은 삶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자기 성찰을 거쳐 궁극적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구운몽>은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독특한 서사적 장치들을 계속 구사함으로써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여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끈다.²⁸⁾ 이 점이야말로 깨달음 텍스트로서의 <구운몽>의 위대함을 증명한다.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구운몽>에서 시종 관철되는 깨달음의 서사 장치들을 눈여겨 보고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

특히 <구운몽>이 시종 서사적 장치로 구사하는 진망론(眞妄論)을 포착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운몽>은 진망론을 철저히 구사하게 하여 진망론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양소유가 처첩들을 속이기 위해 구사하는 진망론은 바로 직전까지 처첩들 자신들이 구사하던 수법인데, 궁지에 몰린 처첩들은 스스로 그 진망론을 부정한다. 진망론이 진실과 완전히 모순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다. 또 ‘돌아온 성진’은 양소유로서의 일생을 부질없는 꿈과 같은 것이라고 부정해버리는데, 그런 성진을 육관대사가 꾸중한다. 성진이 자신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양소유의 일생으로 대변되는 세속의 삶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성진은 허황한 진망론을 맹신하여, 자기는 진짜 진(眞)이고 양소유는 가짜 망(妄)이라고 보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그래서 양소유로서의 삶을 근본적으로 부정해버린 것이다. 성진의 이같은 태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허망한 것으로 치부하고 우울하게 되곤 한

28)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강옥(2010), 『구운몽의 불교적 해석과 문학교육』, 소명출판, 225-291면 참조.

다. 학습자들이 이 대목의 성진을 바라보며 그 태도의 문제성을 간파해가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 삶에 대해 가져왔던 진망론적 태도를 반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육관대사의 자리에서 보면 성진의 진망론이 부당함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진망론이야말로 이분법적 논리이며 그것은 실상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는 실정을 간파한다. 성진 스스로가 망(妄)인데 진(眞)이라 착각하고 상대의 모든 것을 허망한 망(妄)으로 치부해버리니 이런 삶의 태도야말로 강력한 우울증적 기제가 된다. 성진의 어리석음은 현실의 모든 것이 업(業)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통각하지 못할 때 진망론의 도식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구운몽>을 깨달음의 텍스트로 읽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선지식이 수행자를 이끌 듯이, 교사도 인생의 지혜를 먼저 깨달은 선각자로서 혹은 자기 삶을 기꺼이 행복하게 꾸려가는 선배로서 학습자들을 끌어주고 깨우쳐줄 수 있다. 구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겸양과 간절함이다. 문학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고 성찰하는 경험을 통하여 분별적 사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경험한 학습자들은 현실을 더 이상 이분법적 진망론으로 분별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혹은 이분법적 진망론의 한계만은 인식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기의 삶을 다른 누구의 삶과도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진(眞)과 망(妄)으로 양분하지 않는 태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조건을 완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학교육은 지금 이곳의 삶을 행복하게 맞이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으며, 그것은 문학교육이 가진 위대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는 진망론이 아니라 살활론을 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살활론적 교육은 살(殺)해야 할 때 살하고, 활(活)해야 할 때 활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현실에 집착한 초기 양소유와 같은 사람일 때 ‘현실이 꿈’임을 경험하게 한다. ‘돌아온 성진’과 같이 현실의 의의

를 부정하는 학습자에게는 ‘현실이 꿈’이면서도 ‘그 꿈 속에 소중한 가치’와 ‘깨달음’이 있음을 경험하게 한다. 전자에서는 살(殺)을, 후자에서 활(活)을 시행한 셈이다. 어느 쪽도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전자에서 살을 강조한 것은 양소유와 같은 사람에게 살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고, 후자에서 활을 강조한 것은 성진과 같은 사람에게 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실에 대한 살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집착(常見)을 떨쳐버리기 위함이고, 꿈이나 환에 대한 활을 강조하는 것은 꿈에 대한 부정적 생각(斷見)을 떨쳐버리기 위함이다. 이것이 살활을 적재적소에 원만하게 구사하는 살활자재(殺活自在)이다.

교사가 학습자의 처지와 성향을 정확하게 알고 각각에 알맞은 세계관과 자아관을 모색하는 것이 서사를 통한 수행의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 살활자재(殺活自在)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양극단을 벗어나 그 각각에 들어있는 중도(中道)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V. 결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삶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과잉 생산과 소비주의를 당연히 여기게 했던 소위 ‘더러운 자본주의’ 대신 새로운 삶의 패턴을 모색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적정 생산과 적정 소비가 아니라 ‘제로성장’이나 ‘지속 가능한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고도 한다. 소규모 자급농업 공동체도 모색해야 한다고도 하고, 동식물에 대한 수탈을 멈추고 사회적 노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공생의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갈등을 극복하는 근본적 해법이기도 할 것이다. ‘욕망의 절제’에서 더 나아가 ‘욕망의 최소화’ 혹은 ‘이기적 욕망의 무화’를 삶의 방식으로 실천해야 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하여 공존공생

의 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제시한 불교적 화쟁, 조선 사대부와 민중의 소통, 연민, 그리고 공감의 말하기, 일화와 구운몽의 시비심 초월과 우울 극복의 패러다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나아가 근대 이전의 우리 문학 유산 중에서도 새롭게 조명될 것이 적지 않다. 여물론(與物論)을 주창한 이규보의 〈문조물(問造物)〉, 〈슬견설(蝨犬說)〉, 〈경설(鏡說)〉 등의 수필, 이상(我相)을 철저히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삼국유사』의 불교설화, 강호가도를 주창한 사대부의 시조와 한시, 후천개벽을 선도하는 천도교와 동학의 가사 등을 국어교육이 새롭게 조명하고 그 교육적 활용을 우선적으로 사유해 봄직하다.

주제어 : 갈등(conflict), 화쟁(harmony), 치유(cure), 국어교육(Korean language education), 문학교육(Literature education)

참고문헌

- 곽병선(1980), 「비판적 사고의 교육」, 『교육개발』 9호, 한국교육개발원, 25-36.
- 권오현(1999), 「문학텍스트와의 생산적 만남 - 이론적 토대 및 교육 가치 분석」, 『독어교육』, 한국독어독문교육학회, 37-72.
- 김대행(2004), 「인간교육과 문학교육」, 『선청어문』, 서울대 국어교육과, 23-41.
- 김도남(2007), 「성찰적 읽기 교육의 방향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제28집, 239-274.
- 김영정(2005), 「비판적 사고와 토목공학 4 ; 고등사고능력의 7범주」, 『자연과 문명의 조화』, 대한토목학회, 78-83.
- 김종철(1997), 「문학교육과 인간」, 『문학교육학』, 한국문학교육학회, 101-117.

- 김혜정(2008),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지도 방향」, 『독서연구』 제20호, 47-81.
- 김혜정(2002), 「텍스트 이해의 과정과 전략에 관한 연구 : ‘비판적 읽기’ 이론 정립을 위한 학제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1-193.
- 도홍찬(2004), 「문학교육과 도덕교육의 연계 방안」, 『문학교육학』 제14호, 한국문학교육학회, 151-189.
- 서수균, 권석만(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한국심리학회, 809-826.
- 서유경(2002), 『고전소설교육 탐구』, 박이정.
- 선주원(2006), 「비평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소설 교육 - 교육대학생의 비평적 에세이 쓰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321-351.
- 우한용(2004), 「문학교육과 도덕성 발달의 의미망」, 『문학교육학』 제14호, 한국문학교육학회, 11-40.
- 원순 역해(2004), 『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 大乘起信論』, 법공양.
- 劉若愚 著, 李章佑 譯(1984), 『중국의 문학이론』, 동화출판공사.
- 윤소미, 이영호(2004), 「한국판 무망감 우울증상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 대상으로」,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4, 한국심리학회, 1051-1063.
- 이강옥(2009), 「문학교육과 비판·성찰·깨달음」, 『문학교육학』 2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9-52.
- 이강옥(2010), 『구운몽의 불교적 해석과 문학치료교육』, 소명출판.
- 이강옥(2007), 「문학 치료 텍스트로서의 <구운몽>의 가치와 가능성-우울증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제24집, 한국고소설학회, 149-189.
- 이재기(2008), 「작문 연구의 동향과 과제-작문에 대한 세 가지 가치론적 접근법」, 『청람어문교육』, 185-217.
- 이중표(2020), 『정선 맞지마니까야』, 불광출판사.
- 이흥우(2006), 『대승기신론통석』, 김영사.
- 임영효(2008), 「愍山の 三敎合一思想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23.

- 정명기(2009), 『한국재담자료집성』1, 도서출판 보고서.
- 정충권(2003), 『흥부전 연구』, 월인.
- 조성진, 전홍진, 김무진, 김창규, 김선옥, 류인균과 조맹제(2001), 「한국 일 도시지역 청소년의 우울 증상 유병율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정신신체의학』 40(4),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31-257.
- 최유진(2020), 『원효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 최홍원(2007), 「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223.
- 툴쿠 튀둑 림포체, 도솔 율김(2007),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 도서출판 청년사.
- 파울로 프레이리 지음, 교육문화연구회 율김(2002), 『희망이 교육학』, 아침이슬.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2003),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증상 공존집단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2, 한국심리학회, 127-144.
- 허왕욱(2004), 「고전문학교육과 도덕적 가치 - <어부사시사> 읽기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14호, 한국문학교육학회, 121-149.
- 황혜진(2006), 「가치경험을 위한 소설교육내용 연구 : 조선시대 애정소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34.

Korean Literature Education as a Method of Hwajaeng(和諍) and Healing

Lee, Kang-Ok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ttitude and method of Korean Literature Education engaging in the settlement of social conflicts.

Although educating critical thinking was a useful methodology in leading the Korean Literature Educ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ourth Educational Curriculum, it has shown its own limit in the exploration of disentangling the contemporary social conflict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ranscending dichotom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critical thinking education, and advises an application of *Wonhyo*(元曉)'s philosophy of *Hwajaeng* to Korean Edu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notice the malady of Speaking Education aiming to defeat the opponent of the debate.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communication, compassion, and sympathy between classes are the cornerstones of the Chosun narrative literature. Those precious traditions can be utilized to overcome the problems of Speaking Education.

The anecdotes of *Hwanh*(黃喜) provide apt examples in devising a literature education program which aims at transcending the quarreling mind. And the *Kuunmong*(九雲夢) can be applied to the literature education program which aims at transcending depression. These programs are

helpful to heal the post-corona social conflicts and seek a new life style.

이강욱

소속: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48길 21 수성하늘채 르레브 101동 901호

이 논문은 2021년 2월 1일 투고 완료되어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2월 9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되었음